

2025 년 10 월 오이코스 나눔지 Oikos Sharing for October 2025

오이코스에서 찬송가 한 곡을 정하여 부른 후, 대표로 한 사람이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At Oikos, after selecting and singing a hymn, one person prays for the meeting.

말씀 읽기: 에베소서 1 장 1-14 절

우리를 택하사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Scripture Reading: Ephesians 1:1-14

God chose us and made us His children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에베소서

A Christ-Centered Reading of the Epistle of Ephesians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구약에서부터 갈망하던, 우주를 비롯한 만물의 통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참 평화 가운데 있었고 그분과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 왔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피조 세계는 평화와 화합 대신 불협화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불화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높은 자리와 왕권을 취하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그렇게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Through the letter to the Ephesians, Paul reveals that the long-awaited hope of the Old Testament—the unification of all things, including the universe itself—has finally been accomplished in Christ. God created all things, including humankind. Humanity once lived in true peace with God, enjoying fellowship with Him. But through Adam and Eve, sin entered the world. Sin changed everything. Creation, which was meant to exist in harmony, was thrown into discord. Husbands and wives fell into conflict, brothers turned against one another—even to the point of murder—and people began

to compete for power and kingship. Thus, humanity gradually drifted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God.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머리이시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반역과 분열을 일삼는 피조물이 때때로 권세를 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는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고 죄로 부패한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세력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통일된다는 것, 그들에게로 이방인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평화와 화합으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말하는 '우주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통해 실현될 일입니다. 우주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분만이 평화를 가져다주시고, 통일을 이루시며, 화합을 이루어 내십니다!

God still remains the Head of the universe and sustains the order of the world, but at times it appears as though rebellious and divisive powers hold authority. Yet,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On that day, peace and harmony will be restored, and all that has been corrupted by sin will be made new. The downfall of those who oppose God's people, the uniting of Israel, the return of the Gentiles, and the reign of God over His people in peace and unity—these were the visions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 Paul declares that these hopes are realized through the sovereign lordship of Christ, who unites the universe under His rule. Jesus Christ is the one and only Head of the cosmos. He alone reigns over all creation. He alone brings peace. He alone establishes unity and reconciliation!

에베소서 한눈에 보기 **An Overview of Ephesians**

우리는 바울 서신의 핵심 주제에 집중하면서 참된 복음의 내용과 성도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가르치고 그에 맞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성도의 삶은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과 거룩함으로 자라 가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모두 강조되어야 합니다.

We have reflected on the core themes of Paul's letters, focusing on the true content of the gospel and the life of the believer. Most of Paul's letters follow a "twofold structure": first, they teach the history of salvation and the grace of God; then, they call believers to live a life worthy of that grace. While the gospel itself and the believer's life can be distinguished logically, in reality they are inseparable. And the order must never be reversed. Justification before God and growth in holiness cannot be separated; both must be emphasized together.

에베소서는 찬송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셨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The letter to the Ephesians begins with a hymn of praise. God has blessed us in Christ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God has become our Father. Our adoption as God's children is not because of our own goodness or uniqueness, but solely because of His good pleasure and will. God desired to love us and determined to save us. The abundant grace of God, which grants us the forgiveness of sins, can never be overemphasized.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이시며, 그분의 통치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부조화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찾아 통일됩니다. 머지않아 만물이 하나되어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The Apostle Paul proclaims that Jesus Christ is Lord over all and that His reign is a present reality. There is no part of our lives—even the unseen realms—that lies outside His authority. He is the ruler of the entire universe, and in Him all things that are in disorder find their purpose and are brought into unity. Soon the day will come when all creation will be united and bow before Christ, the Head of all things.

성도의 삶은 그 소명의 위대함과 고상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방식이자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해야 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며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섬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교회를 세우십니다.

The life of the believer must reflect the greatness and nobility of this calling. The way God has loved us is the very pattern by which we are to love one another. This is the heartbeat of the community of faith. We are to bear with one another in humility and gentleness, to grow together in love, and to build each other up. God has appointed people with diverse gifts within the church so that, through their service, the saints may be equipped and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에베소서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을 절정에 두고 마무리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자라 가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승리를 통하여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Ephesians concludes with a climactic teaching on spiritual warfare. Those who draw their strength from Christ's power and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will stand victorious. For every rule, authority, and power has already been overcome by the victorious Jesus Christ. The goal of this spiritual battle is the spread of the gospel of Christ and the building up of His body, the church, here on earth. Through the holy growth of the saints and through their victories, Jesus Christ—the sovereign Lord over all—will receive the glory He so rightly deserves.

나눔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며 살고 있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몸의 일부)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In what ways am I reflecting Christ in every area of my life? Am I living as a true member of the body of Christ—the community that was purchased by His precious blood?

2.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 은사로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나요?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with Christ Himself as the Head. This means that I, too, am a part of His body. What gifts has God given me? How can I use those gifts to serve Christ's church and His people?

3.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What practical steps can I take this week so that God's glory and the glory of His church may be revealed through my life? Let's share and encourage one another.

기도로 함께 소망하며 **Praying Together in Hope**

1. 성경 말씀에 기초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31-32)

1. Based on the Scripture, offer a prayer of praise and thanksgiving.

Get rid of all bitterness, rage and anger, brawling and slander, along with every form of malice. Be kind and compassionate to one another, forgiving each other, just as in Christ God forgave you. (Ephesians 4:31-32)

2. 일상의 변화를 소망하며,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2. Hoping for change in our daily lives, offer prayers of repentance and resolution.

3.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 Pray for one another and for the church.

4. 주기도문으로 오이코스 모임을 마칩니다.

4. Conclude the Oikos meeting with the Lord's Prayer.